

사상체질 분류에 의한 브레인스토밍 집단 구성 연구

전경원*

Group Brainstorming Activity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Jeon Kyung-won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wangju University

Creativity is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s and ability in the 21st century. Recently leading people in Korean society are aware of the significance of the enhancement of the creativity. However, Korean students are less likely to take initiative or depart from standard ways of thinking or doing things, because Korean Confucius culture puts an emphasis on collectivism. An individual has an obligation to conform in order to avoid conflict and maintain social harmony. The rule of respecting parents and teachers leads to a lack of self-expression and entails silence.

Brainstorming technique developed by American Osbron, who originated the group brainstorming in 1953, is the most popular creative thinking method for the students. Brainstorming technique has two principles : ideation can be more productive if criticism is concurrently excluded; The more ideas the better. In doing BS, each panel should consist of chairperson, an assistant chairperson, recorder, and 10 others including 2-3females. However there are several problems in doing group BS, such as production blocking, uniformity thinking, evaluation apprehension, and social loafing.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investigate the proper way of forming Brainstorming groups with Korean students according to the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originated by Korean Lee Je-Ma in 1894. Human beings are classified in four groups i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 Taeyang-In, Taeum-In, Soyang-In, and Soum-In. Two Yang-Ins are more self-expressive : Taeyang-In has very unique ideas and thoughts; Soyang-In is very humorous and likes to present his/her ideas. On the other hand, two Um-Ins are passive and are not likely to speak out their ideas in group.

* 광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신저자 : 전경원 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592-1 광주대학교 유아교육과 Tel) 016-249-6033 E-mail) jeon33@unitel.co.kr

Therefore, in this investigation firstly, the brainstorming group was formed with two Yang-Ins (Taeyang-In and Soyang-In) and two Um-Ins(Taeum-In and Soum-In) separately and secondly, Yang-Ins and Um-Ins were mixed. And the first method was compared with the second method in terms of the degree of participation of the group members and finally the better grouping method to produce more and better ideas was discussed and suggested for the educational system.

초 록

1950년 Guilford가 창의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후 창의성 계발에 대한 관심은 교육계에서 지속되어 왔다. 최근 들어 창의성은 더욱 강조되어 기업체는 물론 학교 현장에서도 창의력을 신장하기 위해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 중에서 Osborn에 의해 개발된 집단 브레인스토밍은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유연상 기법의 한 가지로 전세계적으로 널리 적용되고 있다. 브레인스토밍의 원칙은 주어진 시간 안에 많은 아이디어를 내야 하기 때문에 평가를 유보해야 하고, 타인의 아이디어로부터 히치하이킹이 가능해야 하고, 우스꽝스러운 아이디어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유교문화권의 한국인들은 발표력이 부족하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브레인스토밍이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집단 BS에서 발생하는 아이디어 생산 차단현상, 획일적인 사고, 평가불안, 사회적인 태만성과 같은 문제로 인하여 아이디어의 양과 질이 감소하기도 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1894년 이제마에 의해 창안된 사상체질 분류(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를 토대로 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집단을 형성할 때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문헌 분석을 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예비관찰을 실시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창의적인 잠재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집단 형성과 이에 적절한 교수 학습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하기 위해 태양인과 소양인으로만 구성된 양의 집단과 소음인과 태음인으로 구성된 음의 집단 학생들의 집단을 관찰하여 양과 음의 집단을 혼합하여 집단을 형성하였을 때를 비교하여 각기 브레인스토밍의 참여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근거로 하여 교육 현장에서 집단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유의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I. 서 론

1950년 Guilford가 창의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후 창의성 계발에 대한 관심은 교육계에서 지속되어 왔다. 최근 들어 창의성은 더욱 강조되어 기업체는 물론 학교 현장에서도 창의력을 신장하기 위해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 중에서 Osborn에 의해 개발된 집단 BS은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유연상 기법의 한 가지로 전세계적으로 널리 적용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유아 교육 현장에서 프로젝트 접근법과 창의성 활동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BS의 원칙은 주어진 시간 안에 많은 아이디어를 내야 하기 때문에 평가를 유보해야 하고, 타인의 아

이디어로부터 히치하이킹이 가능해야 하고, 우스꽝스러운 아이디어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유교문화권의 한국인들은 발표력이 부족하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BS가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소극적인 유아들의 경우 리더의 눈치를 보거나 모방을 하게 되어 브레인스토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전경원, 1997 a). 또한 집단 BS에서 발생하는 아이디어 생산 차단현상, 획일적인 사고, 평가불안, 사회적인 태만성과 같은 문제로 인하여 아이디어의 양과 질이 감소하기도 한다.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 BS활동 시 어떤 방법으로 집단을 구성하면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발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을 모색

하기 위하여 사상체질 연구를 접목시켜 보고자 했다. 이제마가 창안한 사상체질에 대한 이해와 적용은 1970년 이후 우리 나라의 한의사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최근에는 서양에서도 동양의 사상체질을 접목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사상체질은 서양 의학과 달리 개인의 체격, 성격 등과 같이 심신의 균형을 토대로 하여 신체적, 정신적 질병 치료 및 예방에 기여해 왔다. 사상체질 분석이 도입되어 인간의 삶 속에 시행되고 적용된다면 개개인 능력의 효과적인 활용은 물론 적성과 재능에 맞지 않는 분야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로 피해를 받게 되는 인적 자원을 보호하고 잠재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을 것이다(김선호, 2000).

그러나 사상체질을 교육에 적용한 예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한겨레 21, 2000).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성 교육에 적용한 연구는 미국 창의성 학회에서 발표된 '동·서양의 창의성 합류적 접근' 연구(전경원, 1999 a)에서 사상체질을 근간으로 한 BS 교육의 효과를 소개한 논문과, 유아를 중심으로 SBS 뉴스추적(2000.2)에서 양과 음의 집단을 나누어 BS 과정을 소개한 프로그램이 있었을 뿐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1894년 이제마에 의해 창안된 사상체질 분류(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를 토대로 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집단을 형성할 때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관찰 연구를 하고자 한다. 태양인과 소양인으로 구성된 양의 집단과 소음인과 태음인으로 구성된 음의 집단을 관찰하여 양과 음의 집단을 혼합하여 집단을 형성하였을 때, 각 체질에 다른 체질의 유아를 1명 투입했을 때, 세 체질을 모두 섞었을 때의 반응과 비교하여 브레인스토밍의 참여도와 활동의 상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성되었다 :

첫째, 체질별로 각각의 유아들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둘째, 체질별 집단 활동에서 각 체질별 차이점은 무엇인가?

셋째, 각 체질 집단에 다른 체질의 유아를 1명 투입했을 때 집단과 1명의 유아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넷째, 세 체질을 섞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

는가? 관찰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교육 현장에서 집단 BS를 실시할 때 고려해야 할 유의사항과 창의적인 잠재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집단 형성과 이에 적절한 교수 학습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사상체질과 창의성

1. 브레인스토밍 (Brainstorming, BS)

1) BS의 개념과 규칙 및 절차

지금까지 개발된 창의성 기법은 약 300여가지 이상이 된다고 밝혀졌지만, 자유 연상을 하는 BS이 널리 알려져 있고,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법이다. BS은 약 60여년 전인 1938년 BBOD(Batten Barton Durstine and Osborn) 광고회사의 부사장으로 있던 Osborn이 개발하였다. 처음에는 광고회사와 같이 아이디어를 양산해야 하는 곳에서 '조직적인 아이디어의 창출기법'으로 사용했으나 그 이후 산업계와 교육계에서도 널리 사용되었다(전경원, 1997 b).

BS 용어는 Osborn(1953)이 "처음에 참가자들이 이것을 BS 회의로 명명했는데 그 이름은 아주 적절했다. 그 이유는 브레인스토(갑작스런 정신착란)이란 독창적인 문제에 돌격하기 위해 머리를 쓴다는 뜻으로, 즉, 한 사람 한 사람이 용감하게 같은 목적으로 돌진하는 특공대와 같이 돌격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즉, BS이란 '두뇌폭풍'이란 말뜻과 같이 특정한 문제나 주제에 대해 두뇌에서 마치 폭풍이 몰아치듯이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모두 내놓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BS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 원리는 '판단유보'와 '많은 양 가운데서 질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것이다. 전통 토의와 차이점은 활동을 진행하는 동안에 집단의 어느 누구도 아이디어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때 아이디어를 낸 자신도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해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 원리는 아이디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안에서 질 높은 아이디어도 나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에 입각하여 Osborn(1953)은 평가를 뒤로 미루고, 우스꽝스럽고 유머스러운 아이디어도 받아들이고, 타인의 아이디어와 결합하여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만들도록 4가지 규칙을 제시하

고 있다.

첫째, 규칙1은 “비판이 제거돼야 한다”인데 이는 아이디어의 산출을 저해하는 비판, 평가 또는 판단은 마지막까지 피해야 하는 것이다. 이 규칙은 비판 엄금, 비판금물, 평가보류, 평가유보라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둘째, 규칙2는 “자유분방한 사고를 환영한다”인데 이는 산출된 아이디어가 거칠면 거칠수록 좋다는 의미다. 이는 어떤 아이디어를 말해도 좋다는 의미로, 약간은 어리석어 보이고 우스꽝스러워 보이거나 유머스러운 아이디어도 수용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 웃음거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규제에서 벗어나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기대하게 된다. 규칙3은 “양이 요구된다”인데 이는 아이디어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용한 아이디어가 나올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이다. 규칙4는 “결합과 개선이 추구되어야 한다”인데, 이는 참가자들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아이디어로 개선될 수 있는지 제안하는 것으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결합하면 이제까지 없었던 아이디어로 될 수 있을지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 규칙은 ‘무임승차’ 또는 ‘히치하이크’ 라고 불려지기도 한다.

효과적인 BS 활동을 위해서는 4가지 규칙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하며, 집단 구성에 있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BS는 혼자서 해도 무방하고, 2-3명 6-7명 정도도 좋고, 때에 따라서는 수 백 명이 함께 참여해도 좋기 때문에 인원수에 규제를 둘 필요는 없다. 집단 BS 경우에는 전문가로만 구성하는 것보다는 비전문가와 전문가가 섞이도록 하는 것이 좋고, 여성과 남성이 섞여 있어야 다양한 아이디어 히치하이크가 가능하다.

2) BS 효과와 생산성 감소

Torrance, de Bono, Parnes는 학교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교육과정은 다양한 확산적 사고 활동을 통하여 집중적인 훈련을 해야 한다고 믿어 왔고, 이러한 활동은 상상력, 융통성 등을 개발 시킬 것이고, 창의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 왔다(전경원, 1997 b). 이러한

창의성 활동 중에서 브레인스토밍은 창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널리 사용되어 왔고, 그 효과성이 입증되어 왔다(Amabile, 1983; Johnson, Parrot, and Stratten, 1968; Osborn, 1953).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BS가 집단으로 이루어질 때 아이디어의 양과 질이 감소하는 원인을 밝혀 내고 있다. 예를 들어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으로 인해 아이디어 ‘생산 차단현상’이 생기거나(Connolly, Routhieaux, & Schneider, 1993; Diehl, & Stroebe, 1987, 1991; Lamm, & Trommsdorff, 1973), 한 구성원의 사고에 다른 구성원의 사고가 영향을 받아서 유사한 특정 패턴으로 사고가 정형화되는 ‘확일적인 사고’를 하게 되어 확산적인 사고를 하기 어렵게 된다(Dunnette, Campbell, & Jaastad, 1963; Gryskiewicz, 1985; Paulus, & Dzindolet, 1993; Roter, & Portugal, 1969). 또한 자신이 발상한 아이디어에 대해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는 ‘평가 불안’이나(Connolly, Routhieaux, & Schneider, 1993; Diehl, & Stroebe, 1987, 1991; Maginn, & Harris, 1980), 혼자서 아이디어를 발상할 때보다는 집단으로 아이디어를 발상할 때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내려고 하는 노력이 감소하는 ‘사회적인 빈둥성’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Connolly, Routhieaux, & Schneider, 1993; Diehl, & Stroebe, 1987, 1991; Harkins, & Petty, 1982; Latane, Williams, & Harkins, 1979).

특히 한국인들은 체면을 고려하여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BS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전경원, 1999 a). 그러므로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아이디어의 양과 질을 감소시키는 원인들을 찾아내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2. 사상체질

1) 사상체질의 개념

사상의학은 한국의 동무 이제마(1837-1900)에 의해 창안된 의학체계로서 중국이나 일본과는 다른 독특한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제마는 구한말 혼란과 격동의 시대를 살다간 사상가이며 의학자로, 사람들은 각기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같은가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이제마의 사상의학은 병을 치료

하는 목적에서의 단순한 치료의학을 초월하여, 인간의 본성과 심리에 대한 통찰을 통하여 인간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 관계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상하지 않게 하여 개인과 집단의 행복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구하려는 미래지향적인 인간관계의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마는 체질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심리적 유형을 파악해야 제대로 체질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생활과 성격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즉, 사상의학은 사람과 사람간의 차이를 관찰하여 인간의 심리적 유형을 파악하여, 이러한 심성의 차이로 인해 적성, 대인관계 등 사회적 활동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사상의학에서는 체질을 구분할 때 외모, 병증, 심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분하는데, 어느 한 가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3가지를 모두 고려하지만 이 중에서도 '심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러한 사상체질의학은 이제마의 사후 100주년 되는 해를 맞아 사상체질에 대한 연구가 교육학, 리더십 등에 다양하게 적용되어 다학문적인 접근으로 진행되고 있어, 오늘날 한의학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사상체질의 특성

교육은 인간의 체질에 기초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유아 개개인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체질을 이해해야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사상의학에 보면 사람의 체질은 4가지로 분류된다.

(1) 태양인

이제마는 『동의수세보원』에서 “태양인의 귀는 천시를 잘 분별한다”라고 했다. 즉, 태양인에게는 천시를 듣는 귀 곧 직관력, 통찰력, 투시력, 영성(spiritual power)이 선천적으로 발달했다고 했다. 이들은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forcasting)이 뛰어나고, 직관력이 뛰어나고, 청렴결백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불쌍한 이웃을 향한 동정심과 인간애가 풍부하다.

이제마는 태양인의 재주는 ‘교우’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즉, 처음 만나는 사람과도 쉽게 친해질 수 있는 사교적인 성향을 지녔고, 나이와 상관없이 비

전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부담 없이 지낸다. 또한 이들은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을 발휘하여 연설을 할 때 청중을 순식간에 휘어잡기도 한다. 그러나 이를 잘못 활용하여 독재성을 드러내기 쉽다. 또한 가끔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약점을 건드리기도 하며, 남을 괴롭히는 가학적인 행동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들의 친화력과 인간미가 잘 발휘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제마는 태양인 기질의 장점은 소통하는데 있다고 했다. 즉, ‘소통’이라 함은 꼭 막혀 있지 않고 탁 트인 ‘개방적’인 성격을 의미한다. 즉, 이들은 진취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을 지녔으므로 매우 창의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사회의 모든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주장대로 살고, 변화무쌍하여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많다. 그러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다가 이를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아이디어는 많지만 이를 구체화시키는 현실감이 부족하다. 한 가지를 마무리짓기도 전에 뭔가 새롭고 흥미로운 것이 나타나면 그 일에 몰두하게 되어 의욕과잉으로 뒷처리하는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2) 소양인

이성적인 사고력, 분석적인 추리력을 지녔고, 매우 논리적이다. 이들은 모호한 추상적인 사유보다는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현실에 관심이 많다. 이들은 두뇌회전이 빠르고 운동신경이 발달하여 매우 민첩한 순발력을 지녀 푹푹이, 피돌이라는 소리를 듣고, 일을 시작하면 빠른 시간내에 일을 해낸다. 그리고 위기에 처했을 때 상황판단이 빠르고 임기응변을 발휘한다. 그러나 민첩한 순발력으로 인해 신중함과 사려가 부족하여 좌충우돌하여 실수를 연발하기도 쉽다. 이들은 호기심이 많아서 이 일 저 일을 벌려 놓고, 계획성이 부족하여 일에 무턱대고 덤벼들어 실수가 많다. 그래도 의지력이 강하여 실패에 연연해하지 않고 다시 일어난다.

외향적이고 낙천적인 기질을 지녔고, 순간적인 재치와 위트를 지녀서 주변에서 유머감이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 또한 진취적이고 투쟁적이며 파격적인 성격을 지닌 열정적인 사람이다. 이제마는 “소양인의 기질의 장점은 강무에 있고, 재주는 사무에

있다"고 했다. 여기서 강무란 피끓는 열정의 소유자로 불의를 참지 못하고 용맹스럽고 의리를 중시하는 성격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들은 봉사정신이 많아서 남의 일을 자기 일 보듯 돌본다. 또한 소양인은 사무에 능한데 이는 일을 정확하게 처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처럼 열정이 넘쳐 쉽게 잘 흥분한다. 또한 소양인들은 싫고 좋은 것,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하여 싫은 것은 곧 표정에 나타나기도 한다.

삼라만상에 호기심이 많고, 눈썰미와 패션 감각이 발달하여 인테리어와 의상 디자인 및 그림 등에 선천적인 소질이 있다. 이들은 옷을 코디하는데 있어서도 최첨단의 대담하고 개성있는 감각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어렸을 때는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는 도중에 재미있는 것을 보면 구경을 하느라고 지각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자기과시 경향이 크고, 변화무쌍하여 쉽게 싫증을 내고, 충동적인 성격으로 충동구매를 하기도 한다. 또한 유머감각이 뛰어나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지만 주도면밀함이 부족하여 가볍고 경박하다는 인상을 주기도 쉽다.

(3) 태음인

이들은 머리가 명석한 태양인에 밀려서 학교 다닐 때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지만, 이들은 타고난 체력과 독심, 집념과 끈기가 있고, 투지와 승부근성이 있어 성취를 이뤄 낸다. 이제마는 “태음은 기질의 장점은 성취에 있고, 재주는 거처에 있다”고 했다. 즉, 성취란 한 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는 불굴의 집념과 투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거처란 어떤 모임에서든 자기 자리를 듄직하게 지킬 줄 아는 태음인의 성품을 의미한다.

이들은 일처리에 있어서 속도는 늦지만 정확하고 철저함으로 실수가 적어 믿을 만하다. 그러나 새롭고 참신한 일을 시도하기보다는 관례에 따르는 경향이 있어서 일관성과 보편성을 좇는 보수주의자가 되기 쉽다. 자칫하면 미련하고 답답한 인상을 줄 수도 있다. 이들은 한 가지를 가르쳐 주면 오로지 한 가지 밖에 모르고, 얼마 안돼서 그것마저 잊어버린다. 또한 고지식하고 임기유변을 몰라서 ‘형광등’이나 ‘만만디’ 별명을 지니기도 한다.

이들은 타고난 현실감각으로 대인관계를 잘 엮어

낸다. 그래서 이제마는 태음인이 “인륜에 밝다”고 했다. 이들은 리더십이 뛰어나고 처세술과 예의범절이 뛰어나 현실에 잘 적응하여 살아간다. 그러나 이들은 말이 없고 내색도 없어서 겉으로는 의젓해 보이지만 앞뒤를 재고 또 재는 신중한 성격으로 그 마음속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이들은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고 쉽게 굳어 버리는 성품으로 매우 보수적이고, 권위적이 되기 쉽다. 그래서 현실에서 출세가도를 달리다가도 급격한 변화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해 의외의 실패를 맛보기도 한다.

(4) 소음인

소음인들은 감수성이 매우 풍부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려깊은 내면의 소유자로 눈치와 육감이 발달해 있다. 속이 깊고 포근하여 어려운 지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상담자가 되곤 한다. 이들은 지나치게 신중하여 우유부단해 보일 수도 있다. 자칫하면 남을 지나치게 배려하여 기회주의자로 보일 수도 있다. 또한 냉철한 분별력이 부족하여 감상주의로 흐르기 쉽다.

이제마는 “소음인 기질의 장점은 단중에 있고, 재주는 당여에 있다”고 했다. 단중이란 단정하고 침착한 성격을 일컫고, 당여란 소음인의 교우로서 혈연, 지연, 학연을 위주로 한 소극적인 만남을 벗어나지 못하는 특성을 가리킨다. 이들은 많은 모임에 속해 있는데, 있는 듯 없는 듯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다툼보다는 양보의 미덕을 발휘할 줄 알기 때문이다. 이들은 보수적이고 수동적이지만 겸손하고 착하다. 이들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순박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눈치가 빨라서 정밀한 판단력으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사람들의 속마음을 잘 헤아리지만, 비관주의로 빠지기 쉽다. 또한 착한 성품이 지나쳐 무기력한 사람이 되기 쉽다. 성격이 소심하고 내성적이라 실패라도 하면 의욕을 잃고 쉽게 자포자기한다.

소음인은 종종 형체가 없는 물에 비유되는데, 이들은 고정된 자기 모습이 없어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법이 없다. 이들은 운명과 환경에 자기 자신을 맞춘다. 이들은 모험을 싫어하며 안전한 길만 좇으

려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예비관찰에서는 수원에 위치한 '사' 유치원에서 20명으로 구성된 유치반 한 개반을 선택하여 실시되었다. 유아들의 연령, 키, 몸무게는 <표 1>과 같다. 유아들의 교사와 부모가 참여하여 관찰하였다.

표 1. 체질에 따른 신체 평균 특징 조사

	성별	연령	키(cm)	몸무게(kg)
태음인	박혜령	94. 5. 4. (만 6세)	116.5	25
	김성중	95. 1. 5. (만 5세)	114.5	28
	박찬술	94. 8. 15. (만 6세)	110.2	21
	김지연	94. 6. 15. (만 6세)	118.5	24
평 균		5. 75세	117.63	24.5
소양인 1	박재명	94. 3. 11. (만 6세)	119	25
	정연경	94. 5. 8. (만 6세)	116.8	25
	송민경	95. 2. 22. (만 5세)	102	18
소양인 2	심규찬	94. 3. 31. (만 6세)	116.3	21
	김수현	96. 10. 7. (만 4세)	102	18
	조민경	95. 1. 24. (만 5세)	111.8	20
	김병찬	95. 1. 17. (만 5세)	118.4	24
	송호찬	94. 11. 15. (만 6세)	113	20
	유종인	94. 11. 14. (만 6세)	117	25
평 균		5. 4세	112.9	21.7
소음인	이미현	94. 3. 9. (만 6세)	117.5	21
	강하은	94. 4. 10. (만 6세)	113	21
	김규형	95. 1. 1. (만 5세)	107	18
	윤성희	94. 5. 20. (만 6세)	117	24
	김지수	94. 7. 26. (만 6세)	114	21
평 균		5. 6세	113.7	21
전체 총 평균		5. 58세	114.7	22.4

2. 연구절차 및 자료처리

1) 예비관찰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인 관찰 연구로서 유아의 체질을 구분하기 위해 이제마가 체질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평소 생활과 성격을 알아야 한다고 했던 점을 고려하여 일차적으로 2달 동안 유아

를 집중적으로 관찰했다. 관찰은 수원에 위치한 '사' 유치원의 유치반 담임교사의 관찰에 의해 이루어 졌다. 연구에 참여한 담임 교사는 6년간의 교사 경력을 지닌 광주대학교 4년제 유아교육과 출신으로, 본 연구를 위해 여러 차례의 관찰자 훈련을 받았다. 2000년 2월부터 3월에 걸쳐서 관찰할 내용에 대한 토의와 관찰 유의사항에 대한 훈련이 이루어 졌다. 담임교사는 이러한 훈련 과정을 통해 연구 절차를 이해하고, 2000년 3월과 4월에 걸쳐 유아들의 언어, 사회, 정서, 신체 등의 발달 영역별 특징에 대해 자세하게 관찰·기록하였으며, 부모들도 자녀들의 특성을 자세하게 기록하도록 하였다. 4월말에는 사상체학을 전공하고 체질 진단법을 개발·연구하는 한의사로부터 유아들의 체질을 진단 받았다. 유아들의 경우 아직 어리기 때문에 유아 자신의 체질 특성을 언어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사에 의한 집중적인 관찰과 부모의 관찰 내용을 중심으로 하였고, 유아들의 두상, 가슴, 진맥 등을 토대로 사상체학을 전공한 한의사의 도움을 얻어 최종적으로 유아들의 체질을 진단하게 되었다.

2) 본 연구방법과 진행절차

예비관찰 내용과 체질진단 결과를 근거로 집단을 나눠 창의적인 잠재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집단 형성과 이에 적절한 교수 학습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였다. 먼저 소양인으로만 구성된 양의 집단과, 소음인과 태음인으로 구성된 음의 집단 유아들을 관찰하였고, 또한 양과 음의 집단을 혼합하여 집단을 형성하였을 때와 비교하여 각기 BS의 참여도 및 집단활동의 진행과정을 분석하였다.

신뢰성있고, 타당하고, 객관적인 관찰을 위해 사전에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관찰한 기록들을 의미있게 분석하고자(전경원, 1999 b) 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관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오류를 해결하고자 Kerlinger (1986)가 제안한 해결 방안을 참고하여 연구자 자신이 직접 관찰하기보다는 관찰자를 훈련시켜 관찰 결과에 대한 기대를 알리지 않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BS 과정을 관찰하기 위해 예비관찰을 했던 교사가 5월 22일부터 24일에 걸쳐서 각 활동마다 20-30여분씩 진행하였으며, 이

를 언어로 자세하게 기록하였고, 또한 매 활동을 비디오로 녹화하였다. 이 내용들을 종합하여 연구자가 질적 분석을 주로 사용하였고, 부분적으로는 양적인 분석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체질로 구성된 집단(개별 활동과 집단활동)과 이질 체질로 구성된 집단(1명 투입 활동과 세 체질 혼합 활동)으로 나누어 5월 22, 23, 24, 30일 4일 동안에 걸쳐서 수업이 진행되었다.

1. 동일 체질 집단 (개인 관찰, 2000년 5월 22 일)

1) 이야기 나누기 및 작업 활동 관찰

“뼈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와 작업” 시간에 다음과 같이 3집단으로 나누어 개개인을 25분 동안 관찰하였다. 인체 뼈 사진을 준비하고 뼈의 모양, 이름, 기능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직접 몸을 만져 보고 뼈를 짚어 본다. 뼈 위에 종이 인형을 그려 붙여 보는 활동을 했다. 각 체질별로 작업이 시작되어 진행되고 종료되는 행동을 자세하게 관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태음인 (4명)

가. 활동시작 단계

4명으로 구성된 태음인들은 각자 활동지를 가져가 매우 차분하게 자리에 앉았다.

나. 활동 진행 단계

유아 1과 2는 아주 꼼꼼하게 색을 칠했고, 유아 3은 다른 때보다 안정된 색을 사용했다. 유아 1과 유아 3은 가위질을 아주 천천히 하였다. 유아2는 유아 3이 색칠하는 것을 보고 따라 하여 거의 색깔이 똑 같았으나 채색방법은 다소 달랐다. 각자 자신의 작업에 충실하였으나 때론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색연필을 교환하기도 했다. 활동이 매우 조용하고 차분하게 진행되었다. 예외적으로 유아 2가 글씨를 쓰는 부분에서 모르는 글자가 나와서 소리 없이 울게 되어 글씨를 가르쳐 주니 금방 그치고 다시 활동에 집중하게 되었다.

창의적인 측면을 관찰한 결과, 4명 중 3명이 다른 유아들 것을 보고 모방을 많이 하였고, 히치하이킹을 하여 타 유아의 작업을 참고하여 자신의 작업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 결과 활동결과물들은 거의 특색 없이 비슷비슷하여 창의적인 면을 알아보기 어려웠다.

다. 활동 종료 단계 :

자리 이동이 없이 끝까지 자신의 자리에서 작업을 마쳤고, 작업이 끝난 후에 정리 정돈을 매우 잘 하였다.

(2) 소음인 (5명)

가. 활동시작 단계 :

작업을 시작할 때 색칠부터 시작하여 뼈 사진을 받아 가면서 매우 즐겁게 활동을 시작하였다. 각자 매우 침착하게 작업을 시작했다

나. 활동 진행 단계 :

작업 시작 때부터 서로 잡담을 거의 하지 않았고, 서로 작업활동을 비교하거나 이야기 나누는 것도 매우 적었다. 이야기를 나눠도 아주 짧게 이야기를 나눴다. 5명 모두 가위질은 매우 양호하였다.

창의적인 면을 관찰한 결과 유아 1, 2, 4, 5는 여아로 4명의 그림이 거의 비슷하였으며, 유아 2가 조용하게 친구들을 주도했다. 그 결과 유아 4는 유아2의 그림을 모방하였다. 이 중에서 유아 5는 친구들이 작업하는 것을 한참 동안 지켜본 다음에 시작하였다. 작업 속도가 매우 느렸고, 힘들어하였으나 시간이 걸려도 끝까지 마무리했다.

다. 활동 종료 단계 :

끝나는 시간까지 자리 이동 없이 매우 차분하고 조용하게 진행되었다.

(3) 소양인

소양인은 9명이어서 6명과 3명으로 나누어 관찰하였다. 3명으로 구성된 유아들은 체격이 크고, 나이(개월수)가 많고 서로 비슷하며, 글씨 쓰기를 잘 하는 반면, 6명으로 구성된 유아들은 체격이 왜소하고, 글씨를 못쓰는 유아도 있었고, 나이 차이도 많

이 나는 집단이었다.

[3명 집단]

유아1은 남아로 성격이 매우 명랑하고 밝은 유아이다. 발표하거나 자신의 생각 말하는 것을 재미있어 한다. 다양한 놀이에 참여하며, 새로운 것에 많은 호기심을 보이지만 곧 싫증을 낸다. 유아2는 여아로 유머감각이 뛰어나고, 언어구사력이 매우 창의적이며, 솔직한 표현을 사용하지만 산만할 때도 있다. 그리고 자리에 잘 앉지 않으려 하고, 정리정돈이 잘 안 되는 편이다. 유아 3은 여아로 언어표현력이 좋고 책읽기를 좋아하지만, 때로는 말장난을 치기도 한다. 명랑하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다소 말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3명 모두 가위질과 젓가락질이 매우 양호하다.

가. 활동시작 단계 :

이들은 엉덩이를 카페트 바닥에 대고, 앉은 책상에서 활동을 하였다.

나. 활동 진행 단계 :

창의적인 면에서는 각기 개성 있게 작업을 하였다. 유아1은 매우 창의적인 색을 사용하였고, 유아2는 펜으로만 독특하게 그림을 그리고, 유아3은 얼굴표정과 채색방법이 매우 독특했다. 3명 모두 채색방법이 매우 특이하였고, 작업에서도 다른 유아들의 작업을 모방하기보다는 각자의 생각대로 작업을 하여 창의적인 면이 많이 엿보였다.

다. 활동 종료 단계 :

정리정돈하는 것을 싫어하였지만 비교적 끝마무리를 잘하였고, 정리정돈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6명 집단]

가. 활동시작 단계 :

활동시작 때부터 분위기가 들떠 있었고 잡담이 많았다. 다소 소란스러울 정도로 분위기가 어수선하였다.

나. 활동 진행 단계 :

활동이 시작되자 유아들은 자주 이동하면서 많은

질문을 하고 잡담을 했다. 유아 4와 5는 바른 자세를 힘들어하기 때문에 몸을 이리저리 비틀었다. 유아 3은 주어진 과제에 관심이 없어 딴 생각을 하고, 억지로 작업에 임하였으며, 계속 작업과 무관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소양인은 태음인과 소음인 집단에 비해 채색정도와 활동의 집중 정도가 매우 떨어졌다. 이들은 어수선한 상태에서 작업을 했고, 중간에 서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장난을 쳐서 다소 산만하게 보였다.

다. 활동 종료 단계 :

작업이 끝난 후에 정리정돈도 제대로 안되었다. 각자 장난을 치면서 정리정돈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2. 동일 체질 집단(집단 활동 관찰, 2000년 5월 23일)

동일 체질 집단 별로 만약에 “뼈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주제로 BS을 하였다. 각 체질별 관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태음인(4명)

BS 종이를 가운데 두고 조용하게 활동을 시작하였다. 처음엔 토의를 하지 않고 각자 말없이 아이디어를 적었고,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 의견을 내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매우 끈기 있고 침착하게 아이디어를 내려고 노력하였고, 또한 안정적으로 BS을 진행한 결과 9개의 아이디어를 생각해 냈다. 이들 중에 유아 3이 리더 역할을 하여 가장 많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냈다.

(2) 소음인 (5명)

BS 종이를 가운데 놓고 매우 조용한 분위기에서 시작되었다.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눈치만 보다가 유아 2가 서서히 리더 역할을 하면서 BS을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활발해졌다. 유아 1은 발표를 할 때 매우 연성이 낮고 침착하게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였다. 유아 1, 2, 3은 토의 결과를 발표할 때 수줍어하면서 책상에 엮드려 낮은 소리로 발표하였다. 유아 2는 리더로서 끝까지 친구들을 잘 유도하였으며, 소음인 집단에서는 11개의 아이디어를 생각해

냈다.

(3) 소양인

가. 3명 집단

동질적인 소양인 집단의 유아 3명은 매우 재미있게 활동을 진행했다. 처음에는 아이디어를 생각하다가 점차 논의가 활발해지고 서로 많은 의견을 나누면서 적극적으로 BS을 하였다. 유아3은 매우 특이한 생각을 많이 했고, 유아 1과 2는 서로의 의견을 히치하이킹 하여 더 좋은 생각을 하기 위해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3명이었지만 11개의 아이디어가 나왔다.

나. 6명 집단

체격, 나이, 글쓰기 정도면에서 이질적인 소양인 6명은 처음부터 다소 들뜬 분위기에서 BS을 시작하였다. 서로 자기의 의견을 내려고 언성을 높이기도 하였고, 먼저 리더가 되려고 욕심각신하기도 하였다. 유아1, 5, 6은 글씨를 쓸 줄 알아서 매우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냈고, 서로 협동을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각자 주제와 벗어난 이야기를 하거나 장난을 하느라고 소란스러워 졌다. 유아 4는 단 생각만 하였고, 나이가 다른 또래보다 적은 유아 2와 3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장난만 했다. 6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디어는 5개 밖에 나오지 않았다.

3. 이질 체질 집단 (1명씩 투입, 2000년 5월 24일과 30일)

이질 체질 집단 활동이 24일과 30일 양일간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5월 24일에는 “만약에 공룡이 내 방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주제로 BS 활동을 20분 정도 하였다. 이 날은 태음인 집단에 소양인 1명, 소음인 집단에 소양인 1명, 소양인 집단에 태음인 1명을 투입하여 BS 활동을 관찰하였다.

그리고 5월 30일에는 “장터구경”이라는 주제 하에서 ‘사전활동’으로 장터를 나가기 전에 조사하고 싶은 목록을 적어 보는 BS활동을 20여분 가량 진행하였다. 그리고 장터로 나가서 ‘조사활동’을 40여분 정도 했고, 끝으로 유치원으로 돌아와서 ‘집단 장터 꾸미기 활동’을 30분 정도 진행하였다. 전지에 자신

이 조사했던 가게와 가게 위치를 색종이와 색연필로 다양하게 표현하는 활동을 했다. 이 날은 태음인 집단에 소음인 1명, 소음인 집단에 태음인 1명, 소양인 집단에 소음인 1명을 투입하여 관찰하였다.

1) 태음인 집단에 소양인 1명 투입

태음인 4명 집단에 소양인 유아가 1명 투입되었다. 태음인 유아 4명은 새로 투입된 소양인 유아에게 의지하는 면이 나타났다. 소양인 유아가 매우 적극적으로 집단을 리드했고, 그 결과 집단의 집중력도 향상되고, 분위기도 가장 많이 고조되어 BS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2) 소음인 집단에 소양인 1명 투입

소음인 5명인 집단에 소양인 1명을 투입하였다. BS 초기에는 원래 소음인 집단의 리더였던 유아가 집단을 주도했으나 곧 새로 투입된 소양인 유아가 주도를 하기 시작했다. 소양인은 소음인 집단의 유아들을 담당해하면서 혼자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려고 했다. 소양인 유아가 들어오자 소음인 유아들이 자극을 받아서 집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 졌다.

3) 소양인 집단에 태음인 1명 투입

이질 집단 6명으로 구성된 소양인 집단에 태음인 유아를 1명 포함시켰다. 평소 말이 별로 없고 조용한 태음인 유아는 욕심이 많아 무엇이든 잘하려고 하는 편이다. 태음인 유아는 계속 관찰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양인 유아 중에 한 명이 주의를 산만하게 하였으나 태음인은 적극적으로 BS을 하려고 하였고, 이러한 자세에 고무되어 몇몇 소양인 유아들이 합세하여 아이디어를 내보려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태음인 유아는 발표를 좋아하지 않는 편이지만 BS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을 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했으며, 다른 유아들이 산만하여 아이디어를 내지 못한 것에 아쉬워하였다.

4) 태음인 집단에 소음인 1명 투입

태음인 집단에 소음인 1명을 투입하였더니 매우 차분하게 잘 적응하였다. 소음인이 들어오자 태음인 들은 별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BS 활동을 하였다.

‘사전활동’ 시간에 새로 투입된 소음인 1명은 평소보다 더욱 말이 적어졌고, 친구들의 의견은 듣지만 자신의 활동에 열중하느라 태음인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었다. 활동이 진행되면서 ‘장터 조사활동’ 시간에는 혼자서 차분하게 활동에 몰두했고, 좀더 해볼 것을 교사가 권유하자 아이디어를 내면서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려고 노력하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태음인의 영향을 받아 평소보다 다소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 ‘장터 꾸미기 집단 작업활동’에서는 태음인들과 협력하여 활동하지 않고, 한쪽에다 자기 나름대로 다른 영역을 말없이 표현하였다. 소음인은 한 쪽 영역을 정해 놓고 다른 태음인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활동했다.

5) 소음인 집단에 태음인 1명 투입

소음인 집단에 태음인 1명을 투입한 결과 ‘사전활동’ 시간에는 태음인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활동에 임했다. 말없이 소음인 친구 옆에 앉았고, 소음인 ‘하’ 친구가 태음인을 배려하여 활동을 유도하자 자연스럽게 토의를 시작했다. 그러다가 다른 소음인 친구가 옆에 와서 앉게 되자 소음인 친구들이 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직접 적거나 아이디어를 내지는 않아 마치 태음인이 소음인과 비슷한 성격을 띠는 것처럼 보여졌다. 점차 활동이 진행되면서 ‘조사 활동’이 시작되어 소음인 ‘가’ 유아가 태음인 유아를 배려하여 돌이서 활동을 잘 진행해 나갔다. 태음인이 다소 적극성을 보이자 소음인 유아들도 영향을 받아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다. 마지막으로 ‘집단 장터 작업 꾸미기 활동’ 시간에는 자신의 태음인 집단으로 가고 싶어했다. 태음인은 소음인 ‘가’ 유아와 어울려 작업을 했다. 소음인들도 소극적이지만 태음인을 배려하여 집단활동을 하도록 잘 유도해 나갔다.

6) 소양인 집단에 소음인 1명 투입

소양인 전체 9명 집단에 소음인 1명을 투입하였다. 소양인 전체 9명은 소음인에 대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소음인은 장터 나가기 전 ‘사전활동’ 시간에 소양인 집단으로 가라고 했을 때 별 거부 반응 없이 이동하였으나 소양인 집단에 끼지 못하고 분단 주위에 서 있었다. 교사가 의자를 가져다가 앉으라고 유도하자 소양인 ‘마’ 유아와 조용한 곳

에서 작업을 시작했다. 작업 도중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소양인 친구들이 활동하는 것을 쳐다만 보았다. 소음인 유아는 소양인 친구들이 하는 것에 흥미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보는 것 자체만으로 만족하게 여겼다. ‘장터 조사활동’이 시작되자 소음인 유아는 계속 눈치를 보다가 소양인 ‘마’ 유아와 들어서 다소 활동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 때 소양인 ‘마’ 유아가 소음인 유아를 답답하게 여기고 혼자서 독특한 생각을 더 내려고 하였다. 그 결과 다른 유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아이디어를 산출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집단 활동인 ‘장터꾸미기 작업’에서는 친구들 사이에 전혀 끼어들지 못하고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 작업 의욕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소음인의 작업 활동은 전혀 없었다.

**4. 이질 체질집단(3 가지 체질 혼합) - 6월 6일
과 6월 7일**

2회에 걸쳐 3집단을 혼합하여 개인별 활동 관찰과 소집단 활동 관찰을 실시하였다. 개인별활동에서는 ‘개미’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개미의 구조를 창의적으로 그려보는 활동을 하였다. 소집단 활동에서는 개미동네 주제와 관련하여 ‘개미집에 어떻게 들어갈까?’에 대해 BS를 했다.

2회의 관찰 결과 소양인은 소양인끼리 있을 때 다소 소란스럽고 들떠 있으며, 태음인과 소음인이 혼합되면 말장난과 같은 행동이 줄고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려고 한다. 소양인들은 태음인과 소음인이 한 집단에 혼합될 경우 이들에 대해 다소 지루한 느낌을 갖기도 하지만 태음인과 소음인의 소극적인 자세를 보고 분발하여 리더가 되려고 한다.

태음인은 소양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밝은 분위기 속에서 소양인처럼 아이디어를 많이 내려고 한다. 그러나 소음인으로부터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소음인은 혼합집단에 있는 밝은 성격의 소양인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일에 열중한다. 또한 태음인으로부터도 별 영향을 받지 않고 혼자 자신만의 일에 몰두하기를 좋아한다.

즉, 소양인은 태음인에게 영향을 주고, 소음인에게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소극적인 태음인과 소음인의 지루함에서 탈피하려고 노력한다.

태음인은 소양인으로부터 영향을 주고받지만 소음인으로부터는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

소음인은 소양인에게는 다소 영향을 주지만 영향은 별로 받지 않고, 태음인에게는 영향을 주거나 받지 않고 혼자 일에 몰두한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인 잠재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집단 형성과 이에 적절한 교수 학습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양의 집단과 음의 집단으로 구성된 경우와 양과 음의 집단이 혼합된 경우를 비교하여 각기 BS의 참여도 및 집단활동의 진행과정을 분석하였다. 브레인스토밍과 사상체질을 접목시킨 선행연구가 부족하지만, 연구결과를 논의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다음 논의와 결론에서는 태양인은 없으므로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하겠다.

1. 각 동질집단을 비교해 보면 동질집단끼리 모였을 때는 각 체질별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특징들이 현저하게 나타난다. 유아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나이는 어리지만 교사의 세심한 관찰과 부모의 관찰 및 사상의학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밝혀진 체질의 특성은 이제마가 정의했던 성인의 특성과 비슷하다.

1) 음 체질 : 태음과 소음

태음인 유아의 경우에는 비슷한 성격끼리 모였기 때문에 BS 진행과정도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태음인만으로 구성되었을 때 태음 유아로부터의 지적, 창의적 자극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각자 자신의 활동에 성실하게 임하였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기는 어려웠다.

소음인도 역시 조용한 성격의 유아들이라서 차분하게 진행되었으나 창의적인 활동은 매우 부족하였고 모방을 많이 하였다. 이들은 자신감이 부족하여 타인의 것을 모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태음인과 소음인 유아들이 BS 집단 활동을 하기 위해 소양인 유아들과 함께 하면 창의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음의 유아들만으로 구성했을 때는 유아들이 소극적이어서 자신의 의견을 내지 않고 남의 눈치를 보거나, 타인의 의견에 순종하거나,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낼 것이라고 의지하는 성향이 강하다. 특히 태음인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양적 질적으로 우수한 아이디어를 내기가 쉽지 않았다. 소음인들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의견을 비판하거나, 자신만의 의견을 강하게 내세우지도 않아서 적극적인 BS가 진행되지 않았다.

2) 양체질 : 소양인

반면에 소양인들 경우 발달 측면에서 유사하고 성숙한 소양인들은 각자 개성적인 작업을 하였으나 정리정돈을 싫어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소양인의 체질이 확연하게 나타나는 매우 이상적인 집단 구성이었으므로 이들만으로 구성된 집단에서 BS 활동을 해도 좋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체격이 왜소하고 발달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소양인 집단의 유아들은 분위기가 들떠 잡담도 많이 하고 창의적인 활동에 몰입하지 못하고 장난치는 것에 더 관심을 보였다. 소양인 유아들만으로 집단을 구성했을 때 서로 자기 의견을 말하려고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식으로 이들은 서로 자신의 의견을 내 놓으려고 했다. 특히 이들은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만 강하게 발표하려고 하고 또한 타인의 아이디어를 비판하려고 하는 행동을 많이 했다. 이들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거나 동기유발이 되지 않으면 탄전을 피우기 일쑤다. 어떤 경우에는 이 집단에 속해 있는 유아들조차 시끄러워서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없다고 불평을 하기도 했다.

이들 집단에는 성실하고 끝을 잘 맺을 수 있는 태음인 성격의 유아들이 함께 작업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소양인들의 집단 구성을 할 때 그들의 밝고 명량한 성격과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나누고, 태음인 유아들과 함께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된다.

2. 각 집단에 1 명의 다른 체질의 유아를 투입했

을 때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1) 태음인 집단에 소양인 1명을 투입한 결과 태음인 집단의 유아들이 소양인 유아에게 의지하는 면을 보였다. 아마도 명량한 소양인 유아가 활발하게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에 초기에는 일종의 '사회적인 태만성' 현상이거나 지나치게 의존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태음인들은 성실하지만 겉으로 잘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소양인의 투입으로 적극성을 보이게 되자 창의적인 자극을 받아 집중력이 고조되고, 이로 인해 BS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바람직한 집단 구성으로 여겨진다.

2) 소음인 집단에 소양인 1명을 투입한 결과 소극적인 소음인 집단의 유아들이 자극을 받아서 BS 활동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소음인들은 소심하고 말수가 적어서 BS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소양인의 투입으로 활발해진 것으로 보여 바람직한 집단 구성으로 보여진다.

3) 이질적인 소양인 집단(6명 구성)에 태음인 1명을 투입한 경우에는 다른 유아들이 산만하게 활동하는 것을 관찰만 했다. 소양인 유아가 주의를 더욱 산만하게 해도 BS를 성실하게 해 보려고 노력하였고, 이런 자세가 몇몇 소양인 유아에게 자극이 되어 합세하여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태음인 자신도 점잖은 편이나 소양인들이 활동에 참여하지 않자 참여시키려고 적극적인 자세를 갖게되었다. 서로에게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고무적인 집단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4) 태음인 집단에 소음인 1명을 투입한 결과, 태음인 집단은 별 부담없이 소음인을 받아들였고, 소음인도 자연스럽게 잘 적응해 나갔다. 소음인은 평소보다 말수가 적어졌고, 태음인의 영향을 받아 다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자 했으나 태음인과 어울리지 않고, 주로 혼자서 차분하게 활동에 몰두했다. 겉으로는 소음인이 별 부담없이 태음인 집단과 잘 어울릴 것 같지만, 소음인이 더욱 소극적이 되는 경향이 있어 썩 바람직한 형태의 집단 구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소음인 집단에 태음인 1명을 투입한 결과, 태음인의 적극적인 활동에 다소 영향을 받았다. 소음인 집단의 유아들은 태음인을 배려하여 활동에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태음인은 비교적 자연스럽게 활동에 참여했다. 태음인 유아는 소극적인 소음인 집단에 들어오자 원래 태음인이지만 평소보다 소음인처럼 소극적이 되었으나 활동이 진행됨에 따라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하여 소음인들에게 다소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집단 유형은 소음인의 배려하는 자세와 태음인의 적극성을 본받으려는 긍정적인 집단 구성이지만, 태음인에게는 다소 소음인 영향을 보이게 되어 그다지 좋은 집단 구성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6) 소양인 집단에 소음인 1명을 투입한 결과, 소양인들은 소음인을 다소 답답해하거나 개의치 않았지만 소음인은 더욱 위축되었다. 소음인은 소양인 집단에 잘 끼지 못하고, 눈치를 보며, 나중에는 작업 욕구마저 상실되어 전혀 작업을 하지 않았다. 이런 점으로 보아 소음인 유아를 소양인 집단에 배치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집단의 형태라고 할 수 있어 이러한 집단 구성은 피하는 것이 좋다.

3. 이질집단을 구성했을 때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온다. 3집단을 혼합한 결과 소양인은 소음인에게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태음인에 영향을 주고, 소극적인 태음인과 소음인의 지루함에서 탈피하려고 노력한다. 태음인은 소양인으로부터는 영향을 주고 받지만 소음인으로부터는 영향을 주고 받지 않는다. 소음인은 소양인에게는 다소 영향을 주지만 영향은 별로 받지 않고, 태음인에게는 영향을 주거나 받지 않고 혼자 일에 몰두한다.

즉, 음과 양의 유아들을 섞어 놓으면 체질이 상쇄될 것 같지만 오히려 다른 체질의 유아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을 매우 흥미롭게 여겼다. 동질집단보다는 이질집단으로 구성된 집단에서 BS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이질집단으로 구성되었을 때 상호간의 히치하이킹도 많았고 서로 자극을 받아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많이 산출되었다. 3가지 체질이 모두

섞였을 때는 성실한 태음인, 사려깊은 소음인, 아이디어가 많은 소양인이 서로 상호 자극을 받고 격려하게 되어 가장 다양한 아이디어가 산출되게 된다.

슈타이너의 기질론과 달리 유아의 창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체질의 유아를 혼합할 때 같은 체질의 유아끼리 집단을 구성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양적, 질적으로 우수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산출된다. 예컨대 Osborn에 의하면 창의성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인 브레인스토밍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람들로 구성된 이질집단이 더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수는 없다. BS를 창안한 Osborn(1953)은 주로 초등학교 생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했고, 집단 구성을 할 때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섞고, 여성과 남성을 섞으면 좋다는 언급만 했을 뿐 구성원들이 어떤 체질인 경우에 바람직하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같은 기질끼리 나눠 집단활동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곽노의, 1999), 본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BS와 같이 많은 아이디어를 산출하기 위한 창의성 교육에서는 다른 기질끼리 섞어야 한다.

이를 근간으로 하여 교육 현장에서 집단 BS을 실시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유의사항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양과 음만으로 집단을 구성하여 각 집단에서의 활동과정을 관찰하고, 각기 집단에 적절한 유아를 투입하거나, 또는 다양한 체질을 모두 혼합하여 BS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2. 창의성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확실적인 방법으로 집단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체질을 고려하여 개개인이 창의적인 자극을 고무시킬 수 있도록 집단을 구성한다. 예컨대, 번호순이나 가나다순으로 집단을 구성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체질의 유아를 혼합하여 각 체질의 장점과 단점 및 경험적, 성격적 특성이 상호보완되도록 한다.

끝으로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한 개 유치원에서 한 반의 유아들 20명을 대상으로 관찰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연구에서 더 많은 수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관찰을 해야 한다.

아울러 태양인이 발견되지 않아서 본 연구에서는 태양인 집단에 대한 관찰결과를 제시할 수 없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태양인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하겠다. 유아들은 아직 체질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조기에 체질을 알아 부모와의 교육 속에서 체질을 이해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참 고 문 헌

1. 김선호(2000). 생활의학으로서의 사상체질의학. 서봉유치원 부모교육 자료집.
2. 스무 살의 TTN (2000.2.3). 한겨레 21.
3. 온고이지신 (2000.2.20). SBS 뉴스추적.
4. 전경원 (1997 a). 브레인스토밍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연구. 2(1), 1-23.
5. 전경원(1997 b). 브레인스토밍에 관한 문헌고찰. 창의력교육연구, 1(1), 29-64.
6. 전경원 (1999 a). '동·서양의 창의성 합류적 접근' 연구. 미국 10차 창의성 학회 발표 논문.
7. 전경원(1999 b). 창의성을 중심으로 한 유아연구 방법론 I. 서울 : 창지사.
8. Amabile, T. E.(1983). The social psychology of creativity. New York : Springer-Verlag.
9. Connolly, T., Routhieaux, R. L., & Schneider, S. K.(1993). On the effectiveness of group brainstorming - Test of one underlying cognitive mechanism. Small Group Research, 24, 490-503.
10. Diehl, M., & Stroebe, W.(1987). Productivity loss in brainstorming groups : Toward the solution of a ridd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3), 497-509.
11. Diehl, M., & Stroebe, W.(1991). Productivity loss in idea-generating groups : Tracking down the blocking effe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3), 392-403.
12. Dunnette, M. D., Campbell, J., & Jaastad, K. (1963). The effect of group participation on brainstorming effectiveness for two industrial sampl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47(1), 30-37.
13. Gryskiewicz, S. S. (1985). Trial by fire in an

- industrial setting : A practical evaluation of three creative problem-solving techniques. In K. Grohhaug & G. Kaufmann(Eds.), *Innovation : A cross-disciplinary perspective*(pp. 205-232). Oslo : Norwegian University Press.
14. Hakins, S. G., & Petty, R. E. (1982).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6), 1214-1229.
 15. Johnson, D. M., Parrott, G. L., & Stratten, R. P. (1968). Production and judgement of solutions to five problem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59, (Monograph Suppl. No. 6)
 16. Kerlinger, E.N. (1986). *Foundations of behavioral research* (3rd ed.)/ New York : Holt, Rinert & Winston.
 17. Lamm, H., & Trommsdorff, G.(1973). Group versus individual performance on tasks requiring ideational proficiency(brainstorming).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 361-387.
 18. Latane, B., Williams, K., & Harkins, S. (1979). Many hands make light the work :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social loaf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1), 120-123.
 19. Maginn, B. K. & Harris, R. J. (1980). Effect of anticipated evaluation on individual brainstorming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5, 2, 219-225.
 20. Osbron, A. (1953). *Applied imagination : Principles and procedures of creative thinking*. New York : Scribner's.
 21. Paulus, P. B., & Dzindolet, M. T. (1993). Social influence processes in group brainstorm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4), 575-586.
 22. Roter, G. S., & Portugal, S. M.(1969). Group and individual effects in problem solving,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53(4), 338-341.